

권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25>

해당 비구의 법문

선재동자는 해당장자의 가르침대로 해당(海幢)비구를 찾아 점차 남방으로 나아갔다. 염부제 경계선인 마리(摩利)마을에 이르러 해당비구를 찾아보니, 그는 경행(經行)하는 길가에서 가부좌하고 삼매에 들어 있었다. 숨도 쉬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깊은 삼매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선재동자가 이러한 해당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사의한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는가? 해당비구의 발바닥에서 수많은 장자 거사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갖가지 장신구로 장엄하고 시방의 모든 세계로 가서, 여러 가지 보배의 복음식 꽃 향 등을 베풀어서 여러 곳에서 빈궁한 중생을 구제하여 주고, 또 마음을 청정히 하여 깨달음의 도를 성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무릎에서는 수많은 참제리와 바라문들이 나와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쾌락하게 하며 또 방편을 써서 나쁜 것을 버리고 선한 법에 머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서는 수많은 신선들이, 두 옆구리에서는 부사의한 용과 부사의한 용녀를, 가슴에서는 수많은 아수리왕을, 등에서 무수한 성문과 독각을, 두 여

래에서는 수많은 아차왕과 나찰왕을, 배에서는 수많은 긴나라왕을, 얼굴에서는 수많은 전륜성왕을, 두 눈에서는 수많은 해를, 미간백호에서는 수많은 제석을, 이마에서는 수많은 법천(梵天)을, 머리 위에서는 무수한 보살대중을, 정수리로부터는 수많은 여래의 몸이 나와 제각기 법계를 장엄하며

반야의 지혜 얻어 증득된 경지 드러내

자비, 공덕 충만 장애없이 자유자재 활동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롭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해당비구는 그 몸에 있는 모든 털구멍마다 각각 무수한 광명 그물을 내고, 날날 광명 그물마다 셀 수도 없는 빛깔, 장엄, 경계, 사업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법계에 가득하였다. 해당비구가 깊은 삼매에 들어 있으면서 이러한 광경들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부사의하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관찰하기를 여섯 달을 지내고 또 옛새를 지낸 뒤에 해당비구는 삼매에서 나왔다.

선재동자는 해당비구의 삼매를 찬란하며 그 삼매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해당비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보안사득(普眼捨得: 모든 것을 두루 널리 관찰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든 이치를 증득함)'이라고도 하고, '정정광명반야바라밀경계(正定光明般若波羅蜜境)'(정정한 지혜 광명에 의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음)이라고도 하며, '정정장엄보문(正定莊嚴寶門: 일체의 경계에서 두루 널리 덕을 베풀어 법계를 장엄함)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었는데, 이 삼매를 얻을 때는 곧 백만 아승지 삼매를 얻게 되는니라."

이러한 해당비구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 삼매의 경지가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증득된 경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비구는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한다. "선남자여, 이 삼매에 들 때에는 모든 세계를 아는, 모든 세계에 가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들어가는 데에 등등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자기를 찾아온 선재동자에게 삼매의 부사의한 경계를 보이고, 또 이렇게 삼매의 한량없는 공덕을 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매는 바로 지혜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부사의한 경계를 나타내고 무량한 공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해당비구는 일체의 선법(善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 때문이다. 진실한 지혜만이 깨달음의 세계를 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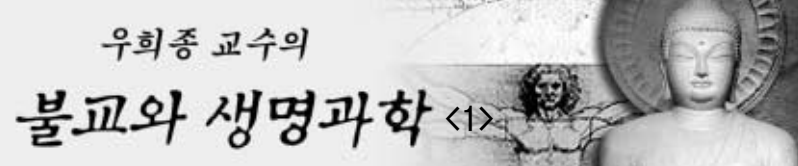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해당비구를 관찰하면서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고, 그 부사의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바다를 생각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였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서서

관찰하기를 여섯 달을 지내고 또 옛새를 지낸 뒤에 해당비구는 삼매에서 나왔다.

선재동자는 해당비구의 삼매를 찬란하며 그 삼매의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해당비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보안사득(普眼捨得: 모든 것을 두루 널리 관찰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든 이치를 증득함)'이라고도 하고, '정정광명반야바라밀경계(正定光明般若波羅蜜境)'(정정한 지혜 광명에 의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음)이라고도 하며, '정정장엄보문(正定莊嚴寶門: 일체의 경계에서 두루 널리 덕을 베풀어 법계를 장엄함)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었는데, 이 삼매를 얻을 때는 곧 백만 아승지 삼매를 얻게 되는니라."

이러한 해당비구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 삼매의 경지가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증득된 경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비구는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한다. "선남자여, 이 삼매에 들 때에는 모든 세계를 아는, 모든 세계에 가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모든 세계를 장엄하는, 모든 부처님을 보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들어가는 데에 등등 아무런 장애가 없다." 자기를 찾아온 선재동자에게 삼매의 부사의한 경계를 보이고, 또 이렇게 삼매의 한량없는 공덕을 설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삼매는 바로 지혜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부사의한 경계를 나타내고 무량한 공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이다. 해당비구는 일체의 선법(善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 때문이다. 진실한 지혜만이 깨달음의 세계를 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

생명과학의 불교적 모습

생명과학과 불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이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생명과학은 생명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체성을 지닌 생명체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이란 생명체를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진리, 무로고 기복교에서도 길(道), 진리, 생명 등으로 부른다.

부처님 말씀처럼 무릇 태어난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지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난 생명체가 소실

야 한다. 이는 마치 정신과학이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정신병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병적인 정신 상태에 대한 정의는 쉬워도 정작 무엇을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볼 것인지나 할 때 결코 그 정의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원래 과학은 과학자 간의 기본적인 약속(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하나의 지식체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에 의한 생명체 조차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을 조차하는 이 시대의 한 방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작금에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인간복제라는 것도 불자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 역시

죽음·늙음·병 그 소멸과정 다룬 학문에 불과

생·사 연연 말고 심안의 지혜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결코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디 생명이란 <반야심경>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늘 거나 주는 것도 아니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기에 생명과학이란 생명 자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죽음이라 불리우는 개체의 소멸과 더불어 늙음이 나 병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멸 과정을 다루는 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학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학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학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생명복제라는 것도 잘 들여다보면 진정한 생명 복제가 아니라 생명체 복제라고 해야 옳으며, 그렇기에 지식 체계로서의 생명과학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을 알아

단지 사대의 변화, 변용(變容)이라는 연가적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꾸며 시작도 끝도 없이 변화하는 흐름으로서만 파악된다. 이 흐름 속에서 생명이 단속적인 개체로서 사대를 취해 그 모양을 나타낼 때 생명체로 불리우며 육근(六根)의 인식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불자들은 소위 현대의 생명과학이란 것은 단지 유행한 결론을 다루는 지식임을 알아, 심안(心眼)의 지혜를 키워 진정한 나를 찾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희종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수의과대학 졸업하고 87년 일본 동경대 대학원 생명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하버드 메디컬스쿨 강사,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수의과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20

화두 하나면 충분한다

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질문의 배경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내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교학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은 많은 세월을 거쳐서 노력 끝에 수많은 법문과 공덕이 점차로 이

그러나 보조는 '간화선이 모든 근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선사들도 이점은 공통된 견해이다. 당시는 다양한 종파가 존재했고, 그 만큼 다양한 근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었다. 오히려 보조는 다양한 근기를 인정하면서 간화선이 삼근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점차로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라, 일시에 한량 없는 법문과 수많은 미묘한 뜻을 얻는 길임을 말한다. 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다음과 같다.

나 손뼉을 치며 깔깔 크게 웃었다. 마조가 물었다. "너는 무슨 이치를 보았길래 웃는가?" 수료는 말하였다. "수많은 법문(法門)과 한량없이 많은 미묘한 뜻을, 오늘 한 터럭의 끝에서 모두 그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조는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국 선종의 대표적인 화두이다. 마지 대승불교도가 '부처님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과 같다. 다만 대승불교도는 대승경전을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였고, 동북아 선종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뜻은 무엇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뜻이 일시에 드러난다는 수료화상의 대답은 간화선의 이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마조는 결코 언어와 언설로서 대답하지 않았고, 바로 이점 때문에 수료화상은 일시에 온갖 법문과 묘용을 깨달았던 것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일시에 한량없는 법문과 뜻 얻는 길

루어진다든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제기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중요 한데, 오직 화두 하나로서 모든 근기에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들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어울려서 점차로 세력을 얻고 있다.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馬祖)선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조사(祖師)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까까이 오라, 너에게 말해주마." 수료가 바로 다가 오자, 마조는 그의 가슴을 잡고 한번 걸 어차 넘어뜨렸다. 그때 수료는 곧장 일어

당신에게 행운을...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지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개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www.bujuk.shop.com

천릉정사 복지원 문의: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널드: 반사이론) (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정맥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흥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온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사의 세포로 건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1. 구두인족의 특수 안정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깥인척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031)742-0296, 742-0297
권행합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강 1동 661번지